

# 북한서적 출판을 보고

李在銑

서강대 국문학과 교수 · 출판부장

최근 우리 출판계의 동향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북한 서적의 複製간행과 북한에 대한 관심의 증대화 현상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조선통사」를 비롯해서 「조선문화사」 「조선철학사」 「조선문학사」 등의 서적이 판매되고 있는가 하면 「피바다」 등 기타의 문학작품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써 40여년간이나 아주 단절되어 왔던 '저쪽'의 문화현상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되었다든가, 같은 민족 단위로서의 동일성은 물론 체제의 이질성이 과놓은 남북의 단층의 거리 파악을 가능케 해주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통일의 모색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바람직하고 확실히 진일보한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는 일이다. 또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정보들은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참고의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독자들의 관심도 큰 모양이다.

그러나 반드시 긍정적인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면역의 항체가 튼튼하다고 볼 수만 없는 여건 속에 불똥처럼 터져 들어오는 지식의 붉은 물결을 보면서 당혹스러움과 의구심 또한 없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이와같은 물결이 계속 거세어지게 된다면 물론 거기에 대한 자생적인 면역도 그만큼 확보될 수가 있겠지만, 달리는 기준질서나 교육 가치의 불신과 혼란이 조장되는 부작용의 여지도 없지 않으리라고 예측된다. 책이란 비판력을 갖춘 지식인이나 특정한 사람들만이 읽는 것이 아니고,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뚜렷하고 명확한 비판적 능력을 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이 그대로 이를 접하고 맹신적으로 수용할 경우, 교육기관에 의해서 이제껏 터득하고 알고 있었던 사실들과의 어긋남을 통해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거나 애써 형성해온 기존 가치의 불신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민족지상의 감정주의가 앞서서 이념적인 이질성의 현실을 잊게 될 경우, 그것이 미칠 부작용도 심각하리란 점이다. 우리는 분명히 혈연적으로 같은 민족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혈연적인 공분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는 거의 남남이나 적대적인 관계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깊은 단절과 대립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령 6·25를 보는 시각만 하더라도 '남침'에 대해서 '북침'의 전혀 다른 시각과 주장으로 대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문학사의 서술은 이쪽의 문학을 모두 보수 반동으로 규정할 정도로 전혀 대립적인 것인데, 민족의 명제 아래서 사상의 전면적 용인을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계에서 북한서적의 발간에 대한 전적인 규제조치를 취해버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한다. 이제 문제는 자칫하면 '민족'과 '통일'의 명분 속에 시류적인 상업주의의 경쟁과 체제의 혼란화가 대두할 조짐의 현상을 경계하면서 충격을 줄이고 원칙없는 무대책에서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대응을 마련하는 일이다. 나라가 기우뚱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나. 간행과 복제는 현재와 같이 개인 출판사에 의해서 임의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출판협회와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서 공공단체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 책의 발간과 함께 독서를 위한 선행적인 '가이드라인' 내지는 해설, 비판들과 같은 글들이 신문과 잡지 등에 의해 활발히 게재됨으로써 독자가 가질지도 모르는 혼란을 미리 막고, 바른 이해를 하게 한다.

셋. 전면적인 개방보다는 우선은 대학의 연구를 위한 참고·연구용으로서 제한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개방의 확대와 단계화가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 가급적이면 북한 책에의 실제적인 이해를 위해서 복제간행보다는 복사나 가능하다면 원본의 수입 판매가 바람직하다. 한 페이지에 '김일성' 운운이 서너번씩 나오는 유일 사상의 실체를 빼고 있는 남쪽 간행본은 오히려 실상 전달을 위해서는 역효과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지인물	2 「우리 배의 歷史」 퍼낸 金在瑾박사
초점	4 새 맞춤법,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이민우
에세이	6 知的 사냥의 보람/金重培
화제작의 주변	7 일본화된 한국인의 이지러진 母國 체험/任軒永
서평	8 김현 편 「미셀 푸코의 문학비평」-吳生根 「해방공간의 문학운동과 문학의 현실인식」-李東夏 9 F. 카프라 「탁월한 智慧」-金容駿 丘仁煥의 「文學教育論」-盧命完 10 朴宗根 「淸日戰爭과 朝鮮」-朴賢緒 도교사상연구회 「道敎와 韓國文化」-琴章泰 11 이성부詩集 「빈 산 뒤에 두고」-朴利道 崔斗錫 편 「吳章煥全集」-서준섭
좌담	12 「출판학」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安春根/吳鎮煥/劉載天/李光宰/李淳子
화제의 책	16 “빛나는 忠節 죽어서도 영화롭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깨우는 교훈 17 ‘혁명’과 ‘해방’ 상징하는 소련 현대시인 위기에 처한 미국경제의 오늘 3 인물 중심으로 본 言論100年史
출판화제	18 대중적 인기 누리는 外國作家들 19 독자 끌어모으는 外國기업가 傳記物
베스트셀러 社會史	20 韓完相의 「民衆과 知識人」 외/李清
지금 독서중	21 콘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잡지기자 李和洙씨 申東曄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만화가 이희재씨 22 f. 프랑크의 「죽기 전에 이 세상을」-불란서문화관 吳蘭伊씨
지금 번역중	22 레오나드 코헨詩選集 번역하는 시인 河在鳳씨
컬러화보	24 월간 「춤」 발행인 趙東華씨의 書架
교양논단	26 역사인물의 심리사회적 분석/신승철
저작 구상	5 「조선초기 樂章문학연구」/조규익
작품 구상	27 장편 「사이렌塔」/趙善作
세계의 출판	28 소설 「푸시킨의 집」이 던진 충격·외
독자서평	30 김승호/이제섭/심상우/孫辰東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이색출판·논문집/자료집 42 理工도서 코너
실용도서	43 현대인을 위한 법률상식 44 신간목록 47 정기간행물 출판기사 색인 48 데스크 칼럼/독서퀴즈